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보의 인절미



옛날에 들던 동화입니다.

어느날 바보가 인절미를 만들어 임금님에게 갔다 드려야 하겠다 하고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쫄쫄 아니 임금님께서서 아무리 인절미가 먹고 싶다고 해도 네가 만든 인절미를 먹겠냐? 그만두고 너나 많이먹어"하고 바보를 비웃었지만 바보는 인절미를 붓집에 넣고 한양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궁 밖으로 나온 임금님이 중간쯤에서 바보와 마주쳤습니다

바보:여보시오 아직 한양길 많이 남았나요

임금:조금만 가면 되는데.....한양에 왜 갑니까?

바보:아~!임금님에게 인절미를 드릴려고요

임금:인절미!어디 구경 한번 해봅시다

바보:뭐!구경.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없나. 어디 임금님 음식을 구경 한다 말이고

바보는 노발대발했지만 임금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럼 어디 맛좀볼까냐?"하며 임금이 붓집에 손을대자 바보는 순식간에 임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네 놈은 죽어야해 어디 감히 나라님 음식에 손을 되는고"

임금은 비록 욕을 먹고 뺨을 맞았지만 기분은 좋아 바보와 작별을 하고 바로 궁으로 다시 돌아와 바보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바보가 궁에 도착해서 임금앞에 나아왔는데.....

"소자야 고개를 들라"

바보는 고개를 들자마자 그만 기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겐 욕먹고 뺨까지 맞은 사람이 바로 임금이라니...

"그래 어디 인절미 맛좀보자" 임금은 한개를 먹고 물마시고 또 한개를먹고 물마시고 또 한개를 먹고는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자야 너도 한번 먹어보렴"

바보는 인절미를 받아 먹자마자 그자리에서 토해냈습니다. 인절미가 딱 썩었어 있었습니다. 바보는 안절부절하여 죽을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에게 욕했지, 뺨 때렸지. 썩 음식드렸지.....

"소인 죽여 주십시오 흑흑흑.."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움으로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서툰 인절미 같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됨을 보시는게 아니라 어설피지만 순수한 마음을 보십니다. 좀 어설피는 교회가 되어 편안함을 가진 교회.그러나 깨끗한 사랑으로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람으로 창립의 의를 두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오랜 환자가 계신 가정의  
간호하는 분을  
위로해 드려라  
환자만큼 지쳐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에 갈 때에는  
10분 일찍 가서 앞에 앉아라  
뒷자리는 항상  
방해 받을 일이 많다

|   |  |  |
|---|--|--|
| 교회목표<br>하나님만이<br>살과 교회의<br>주인                                   |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br><b>갈보리 교회</b><br>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br>누가 10:37<br>*자원함 -섬김과 봉사<br>*의명성 -명예 |
| 제 5권 10 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3년 3월 9일                                    |
|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  | calvary.ca.to                                  |

아이고 이뿌이야~~!



항우 장사도 작은  
충치에 꺾꽂 못합니다  
연약한 인간!  
하나님 앞에 겸손  
해야합니다

예배의 중심

주님!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의 중심은 '설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수많은 책도 읽고 다른 설교도 들으면서

최고의 '설교자'가 되겠다고

칼을 쓱쓱 갈고 닦았습니다

주님!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시간에

예배의 중심인 '설교'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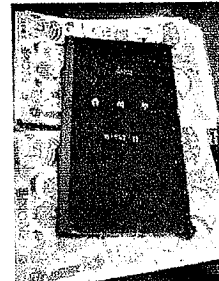
예배의 구석에 밀려 서성거리다가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슬픈 표정으로 그냥 돌아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치용우-



◀추억 생각하기▶

출석부

건망증이 계신 선생님은 교실에 와서 주변에게 가져오라고 시켰던 출석부. 출석부로 머리를 때릴 때 났던 특유의 둔탁한 마찰음은 옆반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덕에 학기말엔 너털거릴 정도로 헤졌구요. 정말 아픈건 모서리로 맞을 때입니다. 용도가 다양했던 출석부.... 지나보니 그때가 그리롭니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  |          |
|---------------------------------|--|----------|
| 영광송<br>Gloria                   | "Calvary"                                    | 다 같이     |
| 참회의 기도<br>Confession Pray       |  | 인도자      |
| 용서의 선언<br>Proclaim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 다 같이     |
| *찬송<br>Hymn                     | 53장  | 다 같이     |
| *성서교독<br>Response Reading       | 47(요한 15장)                                   |          |
| *신앙고백<br>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
| 교회소식<br>Welcome & Announcements |  | 주일학교     |
| 어린이 시간<br>Sunday School         |  | 다 같이     |
| 찬송<br>Hymn                      | 147장   | 박일영 안수집사 |
| 기도<br>Prayer                    |  | 인도자      |
| 성경봉독<br>Scripture Reading       | 누가 23:26-31                                  | 나무심자가성가대 |
| 성가대 찬양<br>Choir                 |  | 김성국 목사   |
| 설교<br>Sermon                    | '너희를 위해 올라'                                  | 다 같이     |
| 찬송<br>Hymn                      | 417장   | 인도자      |
| 헌금 기도<br>Offering Pray          |  | 다 같이     |
| 응답송<br>Response Song            | '이 믿음 더욱 굳세라'<br>(1절:김경일 집사.이선혜 성도가정.2절:다같이) | 김성국 목사   |
| 축도<br>Benediction               |  |          |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3월의 예배위원◆

| 일자 | 주일기도 | 헌금위원 | 가족찬송       | Tea Time |
|----|------|------|------------|----------|
| 2  | 노은숙  | 김선영  | 예배부        | 김인원.김종원  |
| 9  | 박일영  | 김순화  | 김경일.이선혜    | 김진근.민광호  |
| 16 | 이광희  | 김심홍  | 친교부(주방봉사)  | 박병민.박상옥  |
| 23 | 이규임  | 김인원  | 경덕현.김인희    | 박실.박재양   |
| 30 | 이재영  | 김인희  | 유성희(다솔.다은) | 박태원.서동완  |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요즘 배가 나와 운동을 해야겠다고 하면서도 미루다 미루다 한번도 못했습니다. 조깅하는 키워들을 보면 하나같이 안뛰어도 좋을듯한 늘씬한들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땀배가 된것은 "꿈잃없는 열심"이 그 배후였습니다. 믿음도 매일 열심히 댄는 성도가 호감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 1.교우소식

\*장은정 성도 순산. 지난 금요일(7일) 이른아침에 건강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아울러 할아버지,할머니 반열에 서신 장현중 장로,윤주야 집사 내외분께도 역시 축하를...

### \*등록하심을 기뻐합니다

박양숙성도.영훈.지수 ☎ 377-7856 ✉ 19 Sudbury Tce. Parnell

### 2.Daylight Saving Time: 다음주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끝납니다

\*토요일 밤에 한시간씩 뒤로(9시→8시)맞추어 놓으시면 시간을 번듯한 기분좋은이 있습니다.

### 3.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기도해야 할 여러일들을 위해 여성교우들의 어머니 심정의 귀한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일시> 10일(월) 오후 1시 <장소> 교회

### 4.'부활절 헌금을 위한 성경쓰기 봉헌'

\*부활의 아침에 드릴 헌금으로 준비하는 성경쓰기, 준비하는 마음이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문의:박병민 집사)

### 5.정수기 설치:냉온수를 이용할 수 있는 정수기를 주방에 설치하였습니다.

정수된 물로 목추이고 생명수로 영혼을 적시는 영육의 아름다운 조화!

### 6.주차안내: 어린이,학생들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키 위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용 주차장:교회 옆 U-BIX주차장

\*주차안내와 도난방지를 위한 주차위원 자원봉사(3명)를 기다립니다.(문의:이재영 집사)

### 7.새벽기도회:매주 금요일에 갖는 새벽기도회를 금번 3월은 "교우를 위한 특별기도회"로 갖습니다.

### 8.수요일예배:Out of Sight. Out of Mind! 3일에 한번씩 대하는 말씀이 우리를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수요일 7:30pm

### 9.Fiji 교회에서 요청: 지난번 큰 수해를 입은 Fijian을 위해 보낸 옷가지에 이어 학용품,가구,옷,식기등을 모아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유리제품 제외). 다음주일에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행여 사용하지 않으면서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Fijian들에게 정말 요긴하게 사용 될텐데..

### ◀착한 서인들▶ 별 헤는 밤

-운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올해도 건너뛰지 못하고 어느새 가을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웬지 풍성한듯하면서도 정리와 마감이라는 것으로 인생과 연결시켜 보게되는 계절입니다. 이런생활이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도 그래도 고운 단풍 들었다고 같이 걸어 보지않겠냐는 어느 부부의 전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